

경북, 빅테크 손잡고 '제조 AX 인재' 키운다

부트캠프 공모 AI 분야 최종 선정
2030년까지 5년간 88.7억 투입
AI·클라우드·보안 PACE 교육 운영
인턴십·현장실습 취업 연계 강화

경북도가 업스테이지·네이버클라우드·티오리 등 국내 테크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신기술 기반 제조산업 특화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경북도는 대구대학교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 인공지능 분야에 최종 선정돼 2030년까지 5년간 총 88억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71억 2,500만원, 도비 5억원, 기타 12억 5,000만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비전을 지역 제조산업의 AX 전환 혁신을 이끌 P·A·C·E Maker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Physical·AI·Cloud·Security를 아우르는



경북도청 전경.

실전형 전문인력을 길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도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체질을 스마트 제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업스테이지·네이버클라우드·티오리는 각각 AI·Cloud·Security 분야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강의에 나선다. 첨단 기술과 산업 현장 노하우를 대학 정규 교과와 연계하고,

계절학과와 정규학기에는 PACE 중심의 단기 몰입형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업 현장자가 참여해 실무와 연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는 포트폴리오 작성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론과 현장실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단기 집중교육과 빅테크 인턴십을 통해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또 초·중·고교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초 역량을 높이는 공유·개방형 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해 지역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해력 확산에도 나선다.

교육 과정에는 로봇·센서 등 디바이스와 AI를 연동한 공정 제어와 운영, 제조 지능화를 통한 품질 검사와 예지보전 등 공정 최적화, 클라우드 기반 제조 파이프라인과 디지털 트윈 공정 통합 모니터링, OT 환경 보안과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등이 포함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대학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과 함께 교과를 설계하는 것은 산·학 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신기술을 익히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창원시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한화엔진·세방전자·지엠비코리아 등 법인 3곳과 동부회센타 박희선 대표, 기아오뚜큐 진해서비스 김환태 대표 등 개인 2명이다.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패와 함께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 조사 2년간 유예,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 시 납세 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시찰 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거제시

주한 7개국 대사 배우자단 방문

주대한민국 7개국 대사 배우자와 관계자 등 11명이 경남 거제도를 방문했다. 거제시는 주한 대사 부인회 소속 방문단이 거제의 자연경관과 산업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공식 초청이 아닌, 주한 대사 배우자들이 거제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마련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문단은 호주 대사 부인 은영 로빈슨(Eunyoung Robinson) 여사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7개국 대사 배우자와 관계자 등이다. 번공용 거제시장은 3일 시장실을 찾은 방문단과 티타임을 겸한 환담을 가졌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완도군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추진

완도군은 총 59억 원을 투입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그동안 전북,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을 생산하는 478개 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내 인증(유기·무항생제)을 받았으며, 전북, 미역, 쇠미역 등을 생산하는 80개 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 ASC-MSC)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금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지원 ▲유기 수산물 인증 컨설팅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 등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덕군

영덕전통시장, 단체 러브투어

영덕군이 화재로 소실됐다가 재건축을 마친 영덕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월 개장식을 계기로 3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운영하며 상권 회복에 속도를 낸다. 러브투어는 타 지역 단체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대형버스 임차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기존 30명이던 최소 인원을 25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단체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하며 차량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장 편의도 강화했다. 시장 방문시 단체에는 전담 매니저가 동행하여, 안내 인력은 지역 특산물을 설명하고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진주, 97개 학교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면 가동
지역 농산물 사용률 15%p 향상

진주시가 올해 신학기부터 관내 97개 전체 학교에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급식 체계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센터는 2024년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5년 42개 학교로 확대했으며 올해 3월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갔다.

진주시는 기존 '식재료 총액 입찰 방식'이 품질 저하와 안전성 관리 한계, 지역 농산물 사용률 저조 등의 문제를 낳아왔다고 보고 2018년부터 센터 건립을 추진, 총 112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연면적 2145㎡ 규모로 완공했다. 생산부터 물류·소비까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시범 운영 성과는 가시적이었다. 학교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률이 2024년 32%에서 2025년 47%로 15%p 올랐다. 센터는 출하 농가를 지난해 85명에



식재료 제품 설명회.

/진주시

서 올해 111명으로 늘렸으며 현재 75% 수준인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와의 상생도 꾀하고 있다.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 단계부터 관내 가공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영양교사 대상 제품 설명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 업체 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충남,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 구축

아산 등 7개 시군 대상 사업 추진

충남도가 도로·상하수도 등 지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국비와 도·시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아산·당진·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도로 5km ▲상수도 164.01km ▲하수도 60.24km 등 총 229.25km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면을 단순 전산화한 시(市) 지역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측량·탐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군(郡) 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관로의 심도와 위치, 속성정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집된 정보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정보는 도로 굴착 인허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지반 침하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남, 5개 시·군 도시재생안 원안 가결

창원·사천·산청·거창 첫 수립

경남도가 지난 3일 '2026년 제1회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창원·사천·산청·거창·함양 등 5개 시·군의 도시재생 관련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성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창원·사천·산청·거창의 활성화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창원시 문화지구에는 261억원이 투입된다. '틈마루 & 숨길 문화마을'을 비전으로 무학산 비탈진 마을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사천시 망산공원지구는 300억원 규모로 집수리와 골목정비, 생활거점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산청군 옥산지구에는 372억 원을 들여 체류형 거점 공간을 만들고, 도심 둘레길과 힐링 공원을 연계한 주민·청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거창군 전통시장지구는 618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재생하며 청년 창업 지원시설과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함양읍 운림리 일대의 면적을 기존 9만 1271㎡에서 12만 1188㎡로 넓히고, 주택 공급과 유류공간 활용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을 변경했다.

정성문 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핵심 정책"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부산, 中企 정책자금 5000억 지원 본격화

상의·기보·신보·하나은행과 협약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부산·영남권 거점 기업 육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부산·영남권 대표 거점 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기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총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며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한층 개선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금융 부담을 낮췄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이다. 상환 방식은 3년 만기를 기준으로,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중 기업이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나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대상 기업을 추천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의 신용보증을 담당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